



보살

40년만에 돌아온 신안선 유물 광주·목포서 동시에 만난다



지난해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전 모습.



도사모습 연적

국립광주박물관 '신안실' 새롭게 꾸며
 '동아시아 문화와 신안 문화재' 5부 나눠 전시
 목포해양문화재연구소 4300여점 장기 대여
 7월부터 해양유물전시관서 일반 공개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 중인 신안선 선체.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중국 송·원나라때 무역선 신안선에서는 당대 무역품 2만4000여점이 쏟아져 나왔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수중 발굴이 진행되며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이 생기고 국립광주박물관이 세워진 계기가 됐다. 하지만 당시 출수됐던 문화재는 뿔뿔이 흩어졌다. 규모가 커서 이동이 어려웠던 선체와 자단목(紫檀木)은 목포 보존처리장(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맞은 진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도자기 등 나머지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귀속된다.

지난해 열렸던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 전시를 계기로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신안선 문화재를 항상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박물관이 상설전시실 2층에 '신안실'을 새롭게 꾸렸다. 원래 광주박물관은 개관 당시 별도 공간을 확보해 '신안해저문화재실'을 운영하며 중국 도자기, 목기, 청동유물 등을 전시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건립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신안실을 설치하면서 광주박물관의 신안실은 축소됐다. 이마저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을 위해 지난해 5월 소장품을 반환하며 문을 닫았다.

광주박물관은 중앙박물관으로부터 신안선 문화재를 대여받아 2층에 '신안실'을 새롭게 조성했다. 기존 신안 문화재 상설 전시 취지를 계승하면서 박물관 정체성도 알린다는 목적이다.

전시실은 주제 '동아시아 문화와 신안 문화재'를 다섯 분야로 나눠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14세기 동아시아 '원료 무역', '차 문화', '놀이 문화', '도자기', '불교 의식'이다.

1부 '신안선의 원료 무역'에서는 신안선 교역품 중에서도 재가공해 상품화할 수 있었던 목재와 주석 덩어리, 동전 등 원재료를 살펴본다.

2부는 '동아시아의 차 문화와 신안 문화재'이다. 차도구를 통해 중세 동아시아의 차 문화 유행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3부 '놀이 문화'에서는 신안선 위에서 벌어졌던 장기, 바둑 등 놀이문화와 관련된 소장품과 함께 상공으로 거래됐던 휴인형과 상형도자를 전시한다. 4부 '신안선의 중국 도자기'에서는 도자기를 주요 생산지별로 구분함으로써 14세기 중국 도자를 설명한다.

5부에서는 신안선 위에서 행해졌던 불교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용품을 선보이며 안전한 항해를 위해 기도했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문의 062-570-7034.

지난 2004년부터 선체를 복원해 전시하고 있는 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안 문화재 4300여점을 지난 달 장기 대여 형식으로 이관받았다. 사실상 40년 만에 문화재들이 신안선으로 돌아온 셈이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기존에 소장하던 200여점을 더해 오는 7월 해양유물전시관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관 받은 신안 해저문화재는 1323년 중국 용천요(龍泉窯) 청자 3752점을 포함한 백자와 도토기(陶土器)류, 금속기, 목간, 유리구슬, 후주, 선상 생활용품 등이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역사적 침몰선을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르웨이 바이킹박물관, 영국 메리로스박물관 등처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061-270-204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꽃과 만물'

이이남 '아틀리에 STORY'전 참여 유명작가 14명과 회화·조각·미디어아트 170여점

이이남 작가는 30일까지 '2017 아틀리에 STORY'전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올해 전시를 시작한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TV채널 'skyA & C' 프로그램 '아틀리에 STORY' 시즌 3·4 출연 작가 중 14인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회화·조각·설치·미디어아트·공예 등 170여점을 전시한다.

이 작가가 출품한 신작 '바나타스-2017'은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삶은 변화하는 것이며, 변화는 존재를 충만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 다른 작품 '꽃과 만물'은 화려한 꽃을 등장시켜 아름다운 것이 영속되지 못함을 표현한다. 동양 화무심일홍, 서양 바나타스적인 의미를 담아 시간 흐름에 따른 만물의 변화를 담았다.

전시장에는 '거장들의 작업실'을 조성해 작가들이 실제 사용하는 도구 등을 통해 작품탄생 과정을 볼 수 있다. 또 작품 탄생의 숨은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영상을 상영해 작품 이해를 돕는다.

조선대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씨는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르웨이 베스트 포센에서 전시를 열었고 '2016 부산 비엔날레'에서 구극과 협업작업을 하며 주목받았다. 5월에는 대만과 필리핀 등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atelier-story.co.kr) 참조. 문의 02-2146-088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남도문화재단·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박기훈씨 '공존' 대상...우수상엔 이수형 작가

(제)남도문화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2017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대상에 박기훈씨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 출신으로 홍익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박씨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도시에 등장시킨 작품 '공존'(사진)을 출품했다. 판화의 복제성과 짙은 후남은 판 자체의 촉감을 살린 실험적인 작품이다. 흑백 판화에 색채를 넣는 회화 요소를 접목하는 독창적인 형식으로 주제를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박씨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함께 2018년 개인전을 지원한다.

우수상(상금 1000만원)은 이수형 작

가 받았다. 중앙대 예술대학·대학원,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회화 'Float-Zerosum'을 출품했다. 대칭적으로 그린 새,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현대식 건물, 절제구조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그밖에 선정작가상(각 200만원)에는 김선혁·문창배·배수민·안정환·윤석원씨가 선정됐다.

한편 올해 처음 진행된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전'에는 작가 193명이 도전했다. 작가 7명을 1차 선정한 뒤 서울 G&J광주전남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어 작품심사와 작가인터뷰를 통해 최종수상자를 뽑았다. 선정작가 전시회는 18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062-463-0840.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예술인회 계간지 '소나무' 봄호

광주예술인회 발행되는 계간지 '소나무' 봄호(통권 17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은 '새봄, 미학을 논하다'이다. 아름다움이 충만한 봄, 동양화와 서양화, 문학, 사진 속 미학의 세계를 짚어봤다.

외재미술관장 허담재 화백은 '靜中動 古中新'(정중동 고중신) 동양화의 미학을 전하고, 서양화에서는 장식적 전복도림미술관장이 '탄핵 즈음 미술의 정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학 분야는 차노휘 소설가가 3·1절 대마도 여행길에서 느낀 미학적 심상을, 사진분야는 강봉규 사진작가가 '완벽한 언어로써의 사진미학'을 풀어놓았다.

'살아 숨쉬는 근대미술관' 코너에서는 남도 구상회화 대가 양인옥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문화마을을 찾아서'는 남신희 월간 전라도닷컴 기자가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을 찾아 생활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들을 소개했다.



김정호 향토사학자의 '잃어버린 광주 문화유산'은 이번호 광주음식에 대해 다뤘다. 한 상 가득 차려졌던 광주음식의 상징 '광주백반'과 용봉탕, 애저탕 등 사라져가고 있는 음식을 조명했다.

그밖에 하정중미술관 개관, 로터스갤러리 오승운 화백 특별전, 양림동서 떠나는 근대예술여행 등 다양한 문화계 소식을 실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